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0. 12. 13 ~ 2020. 12. 31 제238호

MERRY CHRISTMAS



▲ 헝가리의 한 거리 상점에서. 제공: WMM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밤하늘을 바라보던 동방 박사들은 어느 날 한 별을 보았다. 서둘러 보배함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넣었다. 움직이는 별을 따라가는 길에 혹 시라도 별을 놓칠까 다른 것을 볼 여유도 없었다. 한 성읍이 보였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왕궁이 보였다. “저기다!” 빠른 걸음으로 왕궁에 도착해 헤롯 왕 앞에 섰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

하러 왔노라” 그러나 유대의 왕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 “왕이 왜 왕궁에 없을까? 도대체 어디 계시까?” 왕이 왕궁에 있을 것이란 익숙한 생각 때문에 어느새 별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왕을 찾아 나선 그들 앞에 문득 별이 나타났다. 앞서 가던 별이 한 곳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이곳이구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초라한 마구간이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임하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었다. 우리의 왕은 그런 분이시다. 마리아조차 알지 못했던 그분은 바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바로 그 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임하셨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태복음 1:23) [GPNEWS]

다음 호는 1월 1일자로 발행됩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북한에 성경보내기 어려워진다

풍선으로 북한에 성경 보내던 VOM 기도요청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야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대북사역을 하는 여러 단체들의 존립이 위태롭게 됐다. 실제로 지난 15년간 성경을 실은 풍선을 북한으로 보내온 한국 순교자의소리(한국VOM) 설립자 에릭 폴리 목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6월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한 이후, 한국 정부와 경기도는 대북전단 단체들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에릭 폴리 목사가 풍선을 보내는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막았다. 또 통일

부는 올 여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거나 탈북자를 지원하는 89개 단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한국 VOM을 포함,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큰샘(대표 박정오) 등이 경찰의 집중적인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지난 7월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정부의 통일 정책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비정부기구 자격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폴리 목사는 “우리는 성경만을 보낸다.”며 탈북자 단체들이 주도하는 대북전단 살포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폴리 목사는 또 “이 시점까지 합법이었던 성경 풍선을 쏘아 올리는 것이, 앞으로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것까지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한국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복음이 계속 전달되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한국 VOM은 지금까지 총 60만 권의 성경책을 북

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 매거진(World Magazine)에 따르면, 북한 인권 데이터베이스 센터가 발표한 성경을 본 적이 있는 북한 주민의 비율은 2000년 거의 0%에 가까웠으나, 2016년에 8%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번 의결은 북한이 완강하게 나온 것에 대해 한국 정치인들이 응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 역시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논리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대북전단을 보내는 인권 단체들이 아니라 바로 북한 정권이라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인권 단체들 탓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GP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22)

인간의 마음이 우상 제조 공장?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전도서 3:11)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목마름과 사모함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의 독성이 들어와 목마름과 사모함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우상이란 어느 절간에 불상을 깎아 놓은 정도를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숭배할 수도 있고, 철학, 이데올로기, 정치, 권력을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고 아주 세련된 모습이어서 좀처럼 알아차리기 어려운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인정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다급한 현실이 되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전부라고 하면서도 학벌, 지위, 유명세, 성공 등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뿐 아니라 소유의 우상, 권력의 우상, 쾌락의 우상, 관계의 우상, 성(性) 우상, 돈 우상 등이 현대판 우상입니다. 이외에도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상이란 마음 중심으로 애착을 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에너지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할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



일러스트=김경선

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대상이 들어서게 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요한계시록 2:4)라고 책망하시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랑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없어지거나 식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랑을 어딘가에 팔아먹었다는 것이며 반드시 도로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장년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프랭클린 그레함, “민주당 내 LGBT 활동, 종교자유 침해할 것” 경고



▲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출처: msn.com 캡처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민주당 내 LGBT 등 동성애 활동가들이 잘못된 신념을 바이든 후보와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고 경고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그레함 목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LGBT단체, 바이든에게 기독교 학교의 종교 면제 취소 촉구’라는 제목의 크리스천포스트 기사를 소개하면서 “민주당 내의 친동성애 활동가들이 그들의 이념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최악된 신념에 동의하지 않고, 그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려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동성애 권익운동 단체인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이 지난달 바이든 후보에게 85개에 달하는 ‘동성애 평등’을 위한 정책과 입법안을 제안했으며, 성경적 결혼관을 지지하거나 과학적 교육과정 요건을 제공하지 않는 대학에 한해, 성차별 금지 조항에 대한 면제권을 박탈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대해 그레함 목사는 “그들은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괴롭힐 것이다. 이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기독교대학의 면제권을 (박탈하려고) 하다가, 기독교단체와 교회의 면세 지위를 떼어내려 할 것”이라고

내다왔다. 그는 이어 기독교학교와 단체, 교회들을 “성경적 가르침에 어긋나는 정책에 따라 운영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경고했다. 그레함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이는 우리가 누구에게 투표하느냐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교회를 단호하게 옹호한 트럼프”임을 강조하며 “미국 대통령직을 맡는 사람이 우리의 일상과 이 나라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복음주의 보수 지도자인 그레함 목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인故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로, 사마리탄 퍼스(사마리안인의 지갑)와 빌리그레함복음주의협의회(BGEA) 회장을 맡고 있다. [GPNEWS]

전 세계 아동의 81%... 코로나19로 성폭력·가정폭력·조혼 등 폭력 경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정폭력과 아동노동, 조혼 등 여러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일보가 3일 보도했다. 국제월드비전은 지난 4~8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및 동유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전 세계 50개국의 11~17세 395명의 여자 아동, 367명의 남자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한 ‘액트 나우 포 칠드런(Act now for children)’ 보고서를 지난달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아동 중 81%가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가정, 지역사회를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가정폭력, 아동노동, 조혼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했다. 82%는 교육, 67%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응답도 87%나 됐다. 아동들은 본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바이러스 확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종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의사결정에 참여, 교육 지원, 가족과 지역사회 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월드비전 앤드루 몰리 국제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한 빈곤 등 간접적 영향은 특히 가장 취약한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 폭력, 성폭력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정부와 유엔기관, 공여국, NGO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GPNEWS]

호주서 자녀 성전환 반대한다며 부모의 양육권 박탈

성전환이 합법인 호주에서 10대 자녀의 성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3일 보도했다. 10년 전 가족들과 함께 호주로 이민 온 이 소녀는 의학적으로 남성성이 되고자 호르몬 치료를 원했으나, 그 부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판사는 “이 10대가 성별 정체성의 표현과 그의 감정과 관련해 언어적 학대로 고통을 받았다.”고 판

단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어떤 학대도 없었다.”며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한 법정 싸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국은 우리가 아이의 성전환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아이가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딸의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치료에 동의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호주의 빅토리아주

가 소위 ‘전환 치료’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변화 또는 역제(전환) 관행 금지법 2020’에 따르면, 전환 치료 시 의사들은 1만 달러(5500파운드)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호주 기독교단체인 ‘오스트레일리안 크리스천 로비(Australian Christian Lobby, ACL)’는 “법안은 자녀가 선택한 성별을 확증하지 않는 부모들을 범죄의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직,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이집트 무슬림들, 이슬람 폄하했다며 기독교인 공격

무슬림 마을 주민들이 이집트 민야주에 있는 콥트 기독교인들의 집과 가게를 공격했다고 지난달 30일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댓글에 이슬람을 폄하하는 내용을 남겨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콥트 기독교인 남성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 테러로 고통을 받는 콥트 기독교인들을 기억하십시오. 인내로 신앙을 지키며,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더욱 예수의 증인된 모습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獨, 보행자 구역으로 돌진한 차량에 9개월 영아 등 5명 사망

독일 서부 트리어시 도심에서 1일 오후 1시께 만취한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 1대가 수백 명이 거닐던 보행자 구역으로 돌진해 9개월 된 영아를 포함해 5명이 숨지고 최소 15명이 다쳤다고 독일 SWR 방송이 전했다.

하나님, 자신의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나 죽고 예수 산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대만, 작년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 50% 증가

지난해 대만 청소년 흡연자가 8만여 명을 넘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상승했으며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청소년도 50% 증가한 5만 700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위생복지부 산하 국민건강서가 ‘2019년 청소년 흡연실태조사’에서 밝혔다. 58%의 중학생과 53.4%의 고등학생이 처음 흡연하게 된 이유는 호기심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님, 호기심으로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해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대만 청소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세상이 보여주는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플랜드’ 단체상영... “낙태 과정 충격, 생명의 소중함 깨달아”

영화 ‘언플랜드’ 단체 상영회가 지난달 29일 대구스타디움CGV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람객들은 낙태 과정이 매우 충격적이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고 최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영화 상영 후 CE인권이 진행한 관람객과 인터뷰에서 한 젊은 남성은 “첫 장면부터 낙태에 대해 사실적으로 묘사가 됐는데, 처음 보는 폭력적 장면이었다.”고 고백했다.

죄로 파괴된 인간의 양심에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약한 존재인 태아를 ‘배아’, ‘수정란’이라는 의학적 용어를 써가며 살해하는 완악한 인간들에게 이 영화가 큰 경고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인생도 은혜로 선물 받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0년 12월 14일 ~ 12월 26일

- 12월 14일 ~ 12월 19일 ▶ 광주 북구 / 광주예수마을교회(박**)010-2330-5849, ▶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12.14~18(14-17시)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12.14~19(11-17시) ▶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2.15(11-16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12.18(09-21시) ▶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12.18(10-18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2.18(10시)~19(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6교회 진행중.

- 12월 21일 ~ 12월 26일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12.21(10시)~26(17시) ▶ 강원 고성 / 동명교회(홍**)010-3191-8622, 12.24(0~24시) ▶ 울산 울주 / 우정교회(박**)010-8308-4628, 12.24(0시)~25(24시) ▶ 대전 서구 / 광야아들공동체(정**)010-3697-0641, 12.24(13시)~25(13시) ▶ 제주 초천 / 함덕제일교회(박**)010-5002-2046, 12.24~26(10-23시) ▶ 경기 고양 / 대화사랑교회(강**)010-9326-7767, 12.25(13-17시) ▶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12.25-26(09-21시) ▶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그 외 8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기획 | 하나님의 섭리와 한국의 근현대 (4)

美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은 치열한 장진호 전투의 한 장면

중공군 개입으로 시작된 장진호 전투가 흥남철수작전으로 이어져

지난 10월 미국의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6.25전쟁과 관련한 중국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중국이 남한을 침략한 것”이라고 밝히, 국내외 언론의 눈길을 끌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지난 10월 24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70년 전 (6.25)전쟁이 단순히 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고 남한을 침략한 것”이라고 썰기를 박았다. 오테이거스는 이어 “자유국가들이 (북한의 남침에) 맞서 싸우자, 중국 공산당은 수십만 명의 병사들을 보내 한반도에 참화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저 공산국가인 북한을 돕기 위해 중국 공산정권이 6.25전쟁에 참여한 것이 당연한 사실인 듯 여기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우리 입장에

서 중국 공산 정권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 이 땅의 분단을 고착화시킨 주역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1950년도 말 한반도를 공산화하려고 남침한 북한은 유엔의 역공에 밀려 한반도에서 이미 괴멸상태에 이르러, 사실상 통일 직전의 순간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70년간 북한의 남침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정권은 지금도 6.25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라고 부른다.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돕는 전쟁이라는 뜻이다. 중국 공산정권은 그동안 모든 자국 역사책에 6.25전쟁을 북침으로 기록해왔다. 게다가 한 술 더 뜬다. 6.25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자인 미국이 중국 인민에게 강요한 전쟁이며, 침략에 맞선 ‘위대한 정의의 전쟁’이며 ‘승리의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공산주의 세력은 엄연한 역사적 진실까지도

왜곡시킨다.

하지만 역사는 숨길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재력으로, 힘으로 큰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이 땅에 새겨진 중국과 북한의 공산화 야욕은 곳곳에 버젓이 새겨져 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이곳을 찾아 헌화까지 했다.

미국 대통령의 이곳 방문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6.25전쟁 60주년인 2013년에,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전쟁 50주년을 맞아 2003년에 이곳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방문했다. 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이처럼 방문할 정도로 이곳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 어느 나라 전쟁보다도 한반도에서 벌어진 이 전쟁에서 미국의 젊은 이들의 생명이 너무도 많이 희생됐기 때문이다. 그것도 중국 공산 세력의 참전 때문에.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Korean War Veterans Memorial). 조형물로 전투 당시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출처: nps.gov 캡처

혹스러웠다. 당시 북한 땅을 떠나 이미 중국 땅으로 피신한 김일성은 중공군의 참전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1950년 10월 19일 중공군 18만 명이 총사령관 팽덕화의 지휘 아래 1차로 은밀하게 압록강을 건너 북한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중공군은 이때부터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까지 무려 300만 명의 병력을 한국 땅에 보냈다.

중공군의 참전 사실을 까맣게 모르던 미군은 북진을 계속했다. 미군은 10월 하순에 당시 북한의 임시 수도인 평안북도 강계를 점령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함경북도 개마고원에 있는 장진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때 산속에 숨어서 대기하고 있던 중공군 12개 사단이 미군을 포위했

절히 기도했다. 그러던 그날 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늘이 맑은 날씨로 변하고 밝고 환한 별이 고토리 상공에 반짝였다. 곧바로 교량 공중투하작전으로 가설된 임시교량을 건너 미군은 중공군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었다.

지형도 모르고 운신하기조차 힘든 고원 산악지대에서, 더구나 밤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악천후와 싸웠던 미군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었다. 전투중 전사자보다 동상으로 죽은 병사가 더 많았다. 동태처럼 얼어붙은 시신을 짐짝처럼 트럭에 실어 수송하기도 했다. 이때 미 해병 4500명이 전사하고 7500명이 동상을 입었다.

미국의 전쟁 역사상 최악의 전투로 기록되고, 세계 역사상 3대 동계전투로 알려질 정도의 이 전투에서 미군들의 희생은 엄청났다. 이들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공원이 바로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이다. 공원에는 긴장한 채 얼어붙은 얼굴의 미군 19명이 판초를 입고 총이나 무전기 등을 휴대한 채 행군하고 있는 모습의 동상이 있다.

이렇게 장진호 전투를 치른 미군이 흥남항구로 철수했고, 또 이들의 활약은 그 역사적인 흥남철수작전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북한주민 9만 8000명도 공산군에게 학살되지 않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당시 미군이 중공군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면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은 한국을 포기하고 철수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쟁사가들은 말한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지금까지 6.25전쟁 참전 이유를 순망치한(唇亡齒寒) 때문이라고 한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이다. 북한이 입술이라면, 중국 공산정권은 치아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6.25전쟁에 개입한 중공군은 북한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몰락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웃나라로 두기를 원치 않았던데 그 근본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항미원조는 그저 공산주의 세력 결집을 위한 수식어일 뿐이다. [GPNEWS]

한국 피난민 위한 플랜B, “서사모아에 뉴코리아를 준비하라”

중공군의 예상치 않은 한국전 개입으로 6.25전쟁은 또다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해 말쯤 전쟁을 종결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에 중공군 개입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계획을 세웠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세를 뒤집기 어렵다면, 한국인을 해외로 긴급 이주시킨다는 계획까지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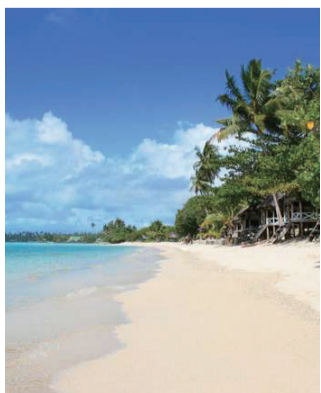
한국전 비화(조셉 C. 글든, 타임스북스, 1982)는 당시 중공군의 총공세 직후 미국 정부의 당황한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고 조갑제 대표(조갑제닷컴)는 칼럼을 통해 소개했다.

중공군의 개입 사실이 알려지자 맥아더 사령관은 총퇴각을 명령했다. 한국을 사수할 것인가, 유엔군을 철수시킬 것인가로 연일 회의를 했다. 맥아더 장군은 만주 폭격, 대만군 투입, 중국 해안봉쇄, 증원군 파견을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군을 건의한다.

미국 합참 기획부서는 한반도

에서 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군과 한국인들의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했다. 합참은 한국인 32만 8000명을 해외에 데리고 가는 계획을 세웠다. 일본, 사이판, 티니안 등을 검토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외됐다.

최종 낙점된 곳은 서사모아 군도의 두 섬, 사바이아와 우폴루였다. 약 800km에 이들을 수용, 뉴코리아를 만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만약 장진호 전투가 실패했다면, 오늘 소수의 대한민국 후손들은 야자열매를 따먹으며 전쟁을 대비하지 못한 그 시대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상상해본다. [GPNEWS]



▲ 사바이 섬 라노 해변 풍경. 출처: britannica.com 캡처



▲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미 해병대원의 시신을 수습한 모습. 흑한 날씨로 전사한 모습 그대로 얼어붙어 있다. 출처: blog.naver.com/chanwoolee 캡처

역사의 시계를 돌려 1950년 말로 가보자. 6월 25일 남침 이후 자유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 낙동강 아래까지 밀려났다. 그러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로 여겨지던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한군은 남한지역에서 괴멸 상태가 됐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하며 낙오자와 도주행렬이 속출했다. 이를 통일의 기회로 여긴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군이 먼저 38선을 돌파하고 북한 수복작전을 시작하면서 대부분 미군으로 구성된 유엔군 역시 이에 가세했다. 김백일 장군의 지휘로 10월 1일 북진명령을 받고 북한 지역 회복작전이 시작됐다.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것도 바로 이날 38선 돌파를 기념하여 지정됐다. 상황이 이쯤에 이르자 북한은 당

다. 전멸할 위기에 처한 미군의 탈출 작전이 시작됐다. 이듬하여 장진호 전투다. 이는 그해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진호에 포위되어 있던 미 10군단이 15일 동안 12만 명의 중공군(10개 사단)의 포위망을 뚫고 무려 128km에 이르는 흥남 항구까지 성공적으로 철수한 후퇴작전이다.

이처럼 중공군의 예상치 않은 개입으로 6.25전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중공군의 침략으로 또다시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와 같은 장진호 전투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며 마침내 작전을 완수했다.

철수과정은 쉽지 않았다. 작전의 마지막 고비였던 12월 7일 고토리 지역에서 교량 파괴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게 됐다. 미군은 좋은 일기와 날씨를 위해 하나님께 간

기획 | 창조 이야기 (45)

지질 주상도는 교과서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짓말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1700년대 후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믿었거나 적어도 기독교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가 6000년 되었다고 믿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었다. 공립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쳤다.

1700년대는 많은 혁명이 일어났다. 미국혁명(1765), 프랑스혁명(1789), 폴란드, 스페인, 독일에서도 일어났다. 거의 모든 나라가 왕에 대한 반기를 들고 민주주의를 세워나갔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다. 성경은 왕을 공경하라(벧전 2:17)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원했다.

제임스 허튼은 모두 지구가 수천 년 되었다고 믿었던 그때 “지구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으며 균일설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균일설은 현재가 과거의 열쇠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경만이 과거의 완벽한 열쇠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지구가 수백만 년 되었다는 주장과 싸우는 대신 받아들였다. 기독교인들은 간격론이나 하루시대론, 점진적 창조 등 수백만 년이라는 사상을 곧바로 성경에 적용시켰다. 1859년 다윈의 진화론이 인기를 얻었을 때도, 기독교인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였다.

제임스 허튼의 책에 큰 영향을 받은 스코틀랜드의 한 젊은 변호사 찰스 라일은 1830년에 ‘지질학 개론’이란 책을 썼다. 이 책은 성경을 증오하고, 성경을 ‘고대적 교리’라고 부르며, 성경적 권위에 대해서는 ‘종교적 편견’이라고 했다.

찰스는 그의 목적이 “과학을 모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지질학, 그랜드 캐니언을 볼 때 “홍수가 해놓은 것을 보라.”고 감탄했으나 그는 사람들이 지구의 역사를 성경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싫었다. 그는 사람들이 지구의 역사를 수백만 년으로 해석하기를 원했다.

찰스 라일은 오늘날 지질 주상도로 알려진 이론의 발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이들은 땅을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시생대 등 여러 층으로 구분해서 이름을 붙였다. 각각의 암반층에 이름과 나이와 표준화석을 정해 놓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이 있기 전 1830년에 정해졌다는 것이 문제다. 이때는 칼륨 아르곤 연대 측정법, 루비듐 스트론튬 연대 측정법, 납 208/206연대 측정법, 우라늄 235/238연대 측정법 등등 이 모든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였다. 그들이 암반의 나이를 정할 때 어떤 방사성 원소 감쇠법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냥 아무렇게나 숫자를 고른 것 뿐이다.



▲ 절벽 바닥의 붉은 층인 미사암과 위의 갈색 암석인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미국 남서부 유타주의 퇴적암. 출처: wikipedia.org 캡처

지구에 여러 층의 퇴적암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퇴적암의 생성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그룹은 그 층들이 수백만 년에 걸쳐서 천천히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다른 그룹은 그 모든 층들이 노아시대의 홍수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진화론자들은 항상 사실과 해석의 중간에 있는 선을 지우고 그들의 해석을 사실의 일부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해석일 뿐이다.

지질 주상도는 사실상 진화론자들의 성경이다. 세상에서 그것을 찾

을 수 있는 곳은 교과서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노아의 방주 : 그 가능성 연구 (Noah’s Ark: A Feasibility Study)’의 저자 존 우드모라페는 “만일 침전물 기둥이 존재한다면... 불행히도 그런 기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질 주상도가 존재한다면 100마일(161km) 두께여야 한다. 지질주상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과서속에 있는 거짓말들 중의 하나며, 사실상 진화론 전체가 이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다. <계속> [GPNEWS]



선교 통신

파키스탄 크리스천의 고백, 박해 가운데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이유로 사회에서 거절을 당하고 있다고 오픈도어선교회가 최근 전했다. 오픈도어는 박해받는 파키스탄의 1500만 명의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며 A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어느 추운 날, A 청년은 교회로 가는 길 한 모퉁이에 포장마차가 있는 것을 보고 따뜻한 음식을 사 먹으려고 다가갔다. 렌틸콩 덮밥 한 접시를 주문하고 돈을 지불하려고 지갑을 찾는데, 포장마차 주

인이 그의 얼굴을 보고 물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 아니요?” 그는 그 교회 교인인 자신을 알아봐 준 것이 반가워, 얼른 대답했다. “네, 맞아요!” 그러자 포장마차 주인은 주려던 음식접시를 엎어버리면서 가서 비닐봉지를 가져오라고 했다. “나는 당신이 내 접시에서 음식을 먹게 할 수 없어. 내 접시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야지. 내 접시를 당신이 더럽히게 할 수는 없지.”

청년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음식 사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 슬프고 자신이 바

보같이 느껴졌다. 청년은 파키스탄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26세의 청년이 이런 현실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마치 집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주위에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어도 여전히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데도 버림받은 느낌이였다.

일상의 박해가 파키스탄 청년과 성도들의 삶이었다

청년은 교회에서 이런 종류의 일들이 매일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을 듣고 있었다. 자기 또래의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 울음소리를 들어온 터라 이런 일들은 일상이었지만,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100가지가 넘고, 결국 이것이 청년과 성도들의 삶이었다.

청년의 일을 들은 목사는 자신이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매일, 모든 사람이 나한테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했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갈 때, ‘음식 위로 숨을 쉬지 않게 조심하

라, 더럽히지 말라.’고 말했다. 꽤 유명한 레스토랑이었음에도 나에게서는 깨지고 낡은 한 접시만 사용하게 했으며, 오래된 잼 병을 물 컵 대신 쓰게 했다.”고 말했다. 목사는 그것이 오랫동안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항상 박해가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답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때 나의 치유도 일어난다

목사의 간증은 형제에게 큰 힘이 되었다. 청년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을 때 나의 치유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고백했다. [GPNEWS]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010-6326-4641



복음의 능력

예수 안에 있는 보화

역사 속에서 늘 있던 문제점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는 교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존 웨슬리 같은 개혁가나 선지자는 내적 본질 없는 교리만 붙들고 있는 교회를 꾸짖었다. 교회의 조직과 교리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교회의 교훈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적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적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성경만을 따랐다.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 보화를 안겨준 근원은 오직 하나이다. 그들의 모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했다. 그분 위에 다른 무엇을 보낼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분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셨다. [GPNEWS]

십자가에 못 박혀라 (A.W. 토저, 2015)에서 발췌



▲ 신앙 훈련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 성도들. © 복음기도신문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영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오후경** 선교사(채널 앤서 국장)



© 복음기도신문

충남 서산의 한 폐교. 주위 환경과 전혀 걸맞지 않는 곳에 위치한 방송국 '채널 앤서(Channel ANSer)'를 찾았다. 화려한 조명이나, 수십대의 카메라나, 수많은 인파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펠릿난로가 피워진 따듯한 사무실에서 군고구마를 준비하고 취재진을 맞는 환한 웃음의 선교사들을 볼 수 있었다. 올해 초 만들어진 채널 앤서의 이야기로 들어가본다.

- 채널 앤서가 무슨 뜻인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뜻의 'Arise and Shine'에 '-er'을 붙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일어나자. 그리고 우리의 일어남이 유튜브를 통해 표출되어서 다른 사람도 일어날 수 있게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방송국은 올해 5월에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순회선교단 서남아시아 부를 맡고 있었어요. 올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선교단체 내부적으로도 사역을 잠깐 멈추는 시간이 겹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지켜보게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움직임이 멈추어졌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었어요. 유튜브였어요. 유튜브에 트래픽이 강한 지역일수록 코로나로 인한 제재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작년 말에는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보다 유튜브 검색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앤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 그런 움직임을 보시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군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런 비상한 때에 뭐라도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기존 김용의 TV를 통해 먼저 '비상한 때, 비상한 기도' 집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매일 기도'라는 콘텐츠를 게시했죠. 그러면서 지금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뛰어 넘어 대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고, 자신이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중요한 사역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 봉쇄령이 내려진 국가도 많았으니 유튜브가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됐겠네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진리를 들으면 좋겠는데, 목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 시간이 넘는 메시지를 보겠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태스크포팀이 만들어졌어요. 그 팀이 방송국 채널 앤서가 된 거죠. 현재 앤서는 모두 순회선교단에서 파견된 전임 선교사들로 구성됐어요. 어떤 형태든 복음의 내용을 담아 만들어 보자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어요.
순회선교단의 선교, 기도 훈련학교에서 했던 '묵상' 강의가 있었어요. 묵상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10분씩 짤아서 해보자며 '묵상'이라는 콘텐츠를 시작했어요. 또 한 주 동안 진행된 성경일독학교를 토대로 성경 각 권마다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인물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도 만들었어요. 또 선교사들의 일상이나 간증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하기도 했어요. '저 행복해요'라는 제목의 영상은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는 일상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인터넷을 복음의 통로로
-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조회 수와 댓글로밖에 확인하지 못해요.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성경이 답하다'는 콘텐츠는 조회 수가 어느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조회 수가 많진 않지만 심도 있는 성경의 진리의 내용까지 찾아와 주는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찾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심각한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캐주얼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해요. 쉬운 콘텐츠를 보면서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

무리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도 재미로 끝나진 않아요. 그 안에 복음의 진리와 믿음의 삶이 녹아져있죠.”
- 영혼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군요.
“재밌고 부드럽게 다가가지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접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기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노출시키고 싶어요. 모든 음식을 차려놓고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해놓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십자가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 시간 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몰랐던 사람들이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발견하길 바라요. '이 사람들이 뭘 붙잡았길래 이렇게 살아가지?' 이런 궁금증에 부딪치다 보면 십자가 중심에 부딪치게 돼서 복음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처음 한두 단계 역할이 유튜브라고 생각돼요.”



▲ 채널 앤서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 © 복음기도신문

- 사역하시면서 어떤 열매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열매는 따로 없어요. 콘텐츠가 열매도 아니에요. 이 영상들을 보고 어떤 도전을 받고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려고 간간히 소식을 듣게 해주세요.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일부러 핸드폰을 두 개 가지고 다니신다고요. 하나는 전화용, 하나는 김용의TV에서 '복음의 진수'를 보시려고요. 어렵고 흥미한 때 이것을 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또 멕시코에 계신 한 목사님은 '비상한 때, 비상한 기도'를 멕시코인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면서 번역하고 싶

다는 문의도 왔어요.”
- 영상작업이 많으신데, 사역자들은 촬영이나 편집을 해보셨던 분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프로그램을 배우고 2주만에 영상을 만들기도 해요. 미디어의 '미'자도 모르는 사람이 와도 다 해낼 만큼 어렵지 않아요. 원리를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창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것에 대한 마음만 받고 주님께로부터 부르심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흥미한 시대에 진리를 외치다

- 사역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미디어 사역에서 조심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결과물이 보이는 것이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편집에는 끝이 없어요. 시간을 들일수록 풍성해져요. 영상을 만들

아침에 충분히 말씀 앞에 서고, 각자가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기쁨으로 일어나는 사람으로 먼저 서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앤서'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유튜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찍어서 올려도 돼요. 아직 우리는 전형적인 틀을 못 벗은 것 같아서 아쉬워요.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각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은혜가 가감 없이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카메라를 들이대면 사람들이 긴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각 사람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을지 기도하고 있어요.”
- 앞으로 계획과 기도제목은 나눠주세요.
“라디오를 할 생각이예요. 복음 기도동맹들의 소식들을 모아서 소개하고, 신청곡도 듣고, 사연도 받고,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긴급한 상황들도 기도제목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앤서'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채널 앤서에서 각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방송국을 섬기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들어봤다.
엄윤덕: “성경이 답하다'를 맡고 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시는 강경구 선교사님이 이 코너를 하면서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강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증인을 보게 됐어요. 저도 편집뿐만 아니라 같이 성경을 통독하며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저뿐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 은혜 받은 한 분이 영상에 댓글을 남기셨어요. 카자흐스탄에 계신 분이었는데, 러시아어로 '성경이 답하다'를 번역해서 자막을 넣어주면 안되겠냐고요. 또 '성경이 답하다'의 내용을 가지고 코로나 기간에 미국에서 성경공부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보이지 않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G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pn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3)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문제를 너무 가까이 두고 보면 나머지 것들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나 문제에서 조금만 떨어져 보면, 보아야 할 것이 다 보인다.

막상 일이 닥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절망에 털썩 주저앉게 된다. 앞이 짙게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문제나 절망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지극히 작아 보인다. 그러나 문제에서 좀 떨어져 보면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 받고 순종하다가 절망이 찾아온 그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다. '그럼 무엇을 믿죠?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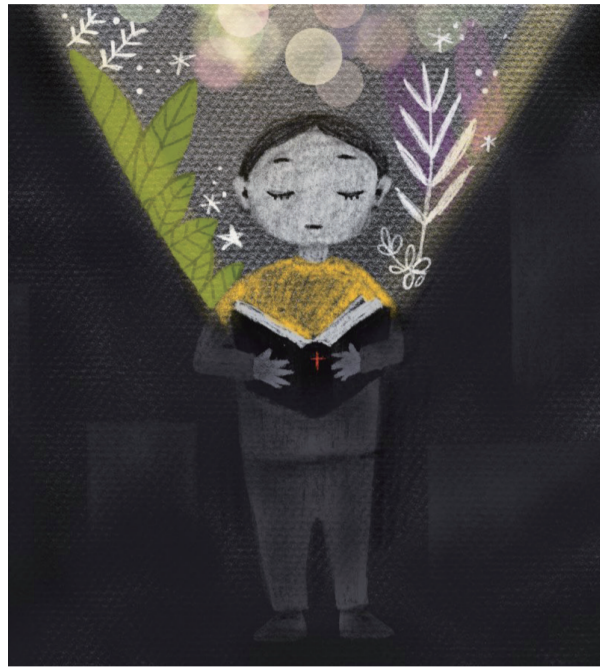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불러내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믿으라고 하신다.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죽음은 끝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복음의 중심에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 십자가는 우리의 처절한 절망을 말한다. 영원히 심판받고 끝장나야 할 나의 옛 사람의 죽음이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나로서는 불가능하고 안 되는 그것을 매순간 확인하게 하신다.

우리의 죄인 된 본성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익숙하다. 그때

주님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 보라고 하신다. 주님과 내가 함께 죽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임마누엘로 내주하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회당장 아이로와 함께 길을 나선 주님은, 처음 시작만 같이 하시고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주님이 함께 나서신 길은 시작이 주님이면 끝도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끝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주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이다. 죽음의 절망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고 하신다.

우리는 이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창조하시는 주님을 믿는



일러스트=이예민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의 응답이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신다(롬 4:18).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아브

라함의 나이가 90이요, 사라의 경수는 이미 끊겼다. 아브라함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렸다. 다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붙들어주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가능성에 있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에게 있다. 이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나를 지으신 이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의 은혜로 그 길 가게 해 주시는 것이다. (2018년 3월) <계속>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H.U.F.M
헤브론선교대학교
2021학년 신입생 모집요강

HEBRON
UNIVERSITY FOR MISSIONS

오라!
와서 배우라!
열방향해
나아가라!

"We proclaim him, admonishing and teaching everyone with all wisdom, so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perfect in Christ" (Colossians 1:28)

www.hufm.or.kr

모집대상

- *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 * 선교적 삶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자
- *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인정 대상자 (단, 예외상황일 경우 상담 가능)

입학설명회

2020년 12월 19일(토) 오후 2시
장소 : 헤브론선교대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교부 (입학설명회에 참여한 자에 한함)
- 입학원서 전형료 2만원
- * 2021년 1월 4일(월)~16일(토)
- * 해외 거주자는 별도 문의

입학전형 일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면접 일시	최종 합격자 발표	개강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2021년 1월 18-22일	2021년 1월 30일	2021년 3월 8일

문의 및 접수처
ADDRESS: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 3길 8
PHONE: 010-2772-4641
MAIL: hufm@hanmail.net

헤브론선교대학교
HEBRON UNIVERSITY FOR MISSIONS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복음 마스크 출시

고컬의 봉제선 없는 3D설계로 세련된 디자인, 빨아쓸 수 있어 경제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며 피부에 자극이 없는 100% 국내 항균원단과 제조기술은 기본입니다!

*로그변경, 단체구입 문의가능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복음기도총서2

GPM

이 길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GPM 최신킴

김용의 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코로나로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올해 초 한국에서 은혜롭게 선교보고를 마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선교지로 돌아왔다. 다음세대 선교사로 헌신하고 열방에서 단기선교의 마지막 해를 잘 보내리라 다짐하며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 코로나요? 이곳은 아직 괜찮아요. 한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알지 못한 채 한국 걱정만 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우리 팀은 한국보다 더 큰 현실에 부딪히고 말았다.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있으세요.” 처음에는 당황했다. 이곳에 코로나가 퍼질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게다가 계엄령이라 아무데도 갈 수 없었다. 비상식량으로 쌀과 밀가루를 10kg 넘게 사다놓고 어찌됐든 잘 생존해보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처음에는 견딜 만했다. 학교 수

업도 쉴 수 있었고 밖에도 나가지 않으니 집에 쉬는 느낌이었는데 일주일이 넘어가자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우리 팀은 휴교된 안전한 대학교의 기숙사로 옮겼다. 그곳에서 매일 짧은 노동과



일러스트-고은연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 선교지에서 내가 가졌던 마음은 ‘생존하자’였다. 지켜줄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곳에서 함께 있는 지체와 잘 생존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생존했다. 그로 인해 팀의 불화도 있었

고 나 스스로도 많이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다. 그럼에도 난 적당히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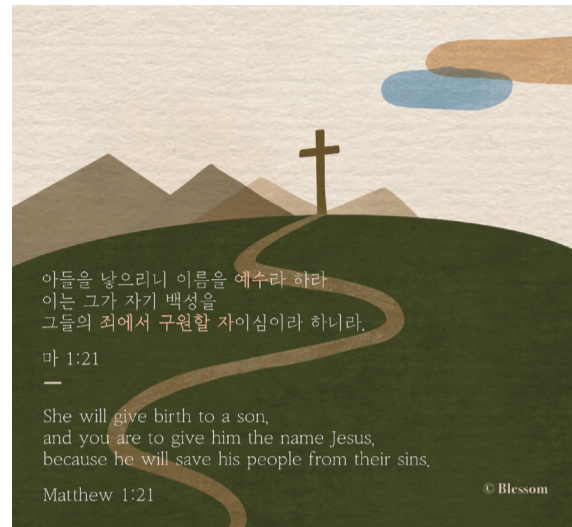
그러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즈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한국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에서 주

님은 선교지에서의 나의 태도가 믿음이 아니었노라고 말씀해주셨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6)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

이었다. 내가 계획하고 주장하고 나의 의견을 반영하려 했을 때의 결과는 팀의 불화였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라고 구할 때 그분은 친히 그 길을 지도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제 한국에서 믿음의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고려인 다음세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어린 아이들을 대하며 어려움도 있었으나,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기도할 때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다.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 매일 아침 말씀의 자리로 나아간다. 아직 믿음의 근육이 부족하지만 매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면서 그 주님을 다음세대에게 전하고 싶다. 주님이 친히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GPNEWS] 김지혜(21)

그림 묵상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 1:21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Matthew 1:21

© Blossom

특별한 탄생

사람들은 생일이 되면 케이크에 촛불도 켜고 선물도 주면서 축하합니다. 생명의 탄생은 그렇게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좀 특별합니다. 그 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축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랄수록 죽음의 시간과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매년 다가오는 생일을 축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일을 기뻐하셨습니다. 매년 생일을 맞을 때마다 죽어야 할 그 날을 기억하며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왜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분은 설렘했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실 생각 때문에... [GPNEWS]

그림 이수진

부흥을 위하여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결핵 집단 감염 속출... 당국 아무 조치 없어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독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당자금을 헌납하기 위해 16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상황에서, 최근 집단으로 결핵에 감염돼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최근 데일리NK가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들이 업무를 재개한 지난 4월부터 결핵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해 최

근 한두 달 사이 결핵 환자가 급증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공장 단지 내에서도 이동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기숙사, 식당, 작업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급식 상태도 좋지 않아서 면역력이 약화된 노동자들이 쉽게 결핵균에 감염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사장들도 난감해하면서도, 북한

노동자 대부분이 정식 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거나 치료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소식통은 “중국 내 북한 영사관에 가면 폐결핵 약을 받을 수 있지만 먹어도 효과가 없다.”면서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33억 원 규모의 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소리(VOA)가 최근 보도했다.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에 관한 연례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국무부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대북 정보 유입 및 북한 내부 정보 유출을 촉진하는 사업과 북한 인권 기록 및 옹호 활동 사업들이다. 구체적으로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 및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 있는 콘텐츠 생산, 정보와 콘

“결핵약을 직접 사서 먹기에는 노동자들에게 약이 너무 비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장 노무사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여성들이 많은데 한창 나이의 젊은 아이들이 장시간 노동하며 감염 병

자 걸려 죽어나가고 있다.”고 탄탄했다.

북한 당국은 자국 노동자들의 집단 결핵 감염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치료약을 제공하거나 귀국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국경이 막히기 전에는 노무사

중에 중증 환자가 생기면 귀국 조치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다.”면서 “결핵은 제 때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 병이지만 치료약이 없으니 점점 더 노동자들이 결핵 때문에 죽고 있다.”고 말했다. [GPNEWS]

美 국무부, 북한 인권 단체에 33억 원 규모 기금 지원



▲ 휴전선 인근에 설치된 철책. © 복음기도신문

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 표현과 이동,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근본적인 자유

의 증진 등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사업의 선례로 제시됐다.

또 북한의 인권을 기록하고 옹호하는 사업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사업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기록 작업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 발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활동이 명시됐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원금은 5만 달러(약 5500만 원)에서 300만 달러(약 33억

원)이며, 최소 2개에서 최대 15개 지원 대상에게 기금이 전달된다. 1차 신청 마감일은 내년 1월 15일이며, 4월 2일, 9월 17일까지 추가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금 신청 대상은 국내외 비영리기구들과 공사립 고등교육기관 등이며, 이들은 모든 사업이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국무부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GPNEWS]



▲ 중국 라오닝성 A의류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출처: 유튜브 채널 Guardian News 캡처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박이소의 <우리는 행복해요>

행복보다 거룩에 이르기를 힘쓰라

박이소 작가는 2004년 부산 비엔날레를 위해 <우리는 행복해요>를 구상하고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작가의 빈자리를 <우리는 행복해요>가 채웠다. 사후 작품은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빌딩이 아닌 주차장에 설치되었다. 박이소는 생전 TV에서 우연

히 본 북한의 체제선전 간판에서 작품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했다. '나의 행복도 아닌 '우리의 행복'을 장담하는 북한의 프로파간다의 억지를 넘어 세뇌에 가까웠다.

가로 40미터 이상의 거대한 규모로 계획된 박이소의 작품은 소소함과 거리가 멀었다. 굵직한 고

딕체는 강압적이고 선동적이다. 작가의 이런 의도는 북한 체제의 과장과 역지가 스스로 드러나도록 하는 데에 있었다. 이처럼 행복을 과장하여 선전하는 자체가 사실 그만큼 북한사회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한편 <우리는 행복해요>가 등장

하고 16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SNS와 인터넷에는 누가 행복한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행복을 줄 다양한 대상들이 차고 넘친다. 불거리, 들을 거리, 먹을거리, 입을거리, 사람들까지. 행복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는 다채로운 행

복 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러나 SNS 유저 중 1/3은 사실과 다르게 행복을 과장한 적이 있다고 했고, 과반수는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나 글을 올리지 않으면 뒤쳐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쯤 되면 우리 사회도 행복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섬뜩해진다. 마치 박이소의 <우리는 행복해요>가 스케치 단계에서 멈춰진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무엇으로도 완성될 수 없는 허구임을 또다시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복을 대체할 신앙의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다. 목마른 것, 채울 수 없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과 완전한 것을 힘써 찾으라 한다. 행복보다 거룩에 이르기를 힘쓰라 한다. 거룩에서 오는 능력과 평안이 곧 영의 행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변치 않는 행복. [G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 2004년 북한의 선전 간판



▲ 작품 설명: 박이소, <우리는 행복해요>, 종이에 스케치(위)와 작가 사후 부산 비엔날레 전시관 주차장에 설치된 <우리는 행복해요>(아래)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낙태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많다

지난 11월 13일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의 낙태법 개정을 바라보며 환영한다는 기사만 나오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물론 기독교 언론 또한 뉴스 전달의 역할도 크기에 사실 전달은 필요하다 생각한다.

조해진 의원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낙태 허용 10주, 사회경제적 이유 20주, 정부 법안은 낙태 허용 14주, 사회경제적 이유 24주였다. 큰 차이가 없어 보였고 우리나라는 낙태 시술이 10주 안에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기에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였다.

작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그동안 너무나 조용하던니 올해 8월 갑자기 낙태법 정부 법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며칠 후 전국의 교회 문을 닫게 했다. 그만큼 교회의 기도는 강력한 것이다. 물론 코로나 방역이 이유였다.

그리고 비례대표 12명을 통해 낙태죄 전면 폐지를 발표했다. 정부 법안 정도로 법이 통과되는 것을 다행이라는 여론을 만들기 위함이다. 물론 조해진 의원님을 통해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살리려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수고를 잘 알고 있

다. 낙태 반대에 대한 마음은 모두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원들이 낸 법안이 정부 법안을 뛰어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미국의 심장박동법처럼 6주 이후 전면 금지로 상징성을 두고 낙태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한 가지, 기독교신문에서조차 10주 법안에 대한 환영 기사만 나오면 다음세대에 뭐라고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



▲ 생명 존중 캠페인에 참여, 낙태전면 허용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 출처: 정영선 제공

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론 기도 응답도 아니고 사역의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실패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다. 이 땅의 영광이 아

니오 그 날의 영광이다. 미국은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낙태 합법 국가가 된 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프로라이프(생명 존중)운동을 50여 년 동안 해왔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고 한다. 최근에도 낙태시술소 앞에서 '생명을 지키자'는 피켓 든 사람들이 수감돼 체포해가는 영상을 보았다. 누군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결과는 예



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시며 우리나라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12월 9일에 열린다. 이번 주 안에 논의될 법안이 정해진다고 한다. 진짜 시

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까지 낙태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존망이 달린 이런 중요한 법이 어떻게 될지 낙담이 되기도 한다.

사탄은 이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이 있다.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다가 포기하고 힘을 빼는 순간 내 자리도 못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한다.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왜 그것밖에 못했냐고 하지 않으신다. 조금만 순종해도 주님이 일하신다. 어느 때 맘속으로 불평하며 한 순종에도 너의 순종으로 일할 수 있었다고 고마워하신다. 내가 다한 것 같은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GPNEWS]

정영선 대표 (태아생명살리기 워드유 캠페인 대표)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서 정영선 칼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0. 11. 19 ~ 12. 2 (가나다 순)

개인 강경영 강성민 김경선 김애심 김정희 김지영 노은옥 문미현 박경희 박숙자 박현숙 안수경 윤경석 이남준 이삼연 이영옥 이은주 이종훈 이주선 이준진 이진희 장근혜 장은희 정영배 조명숙 조형광 차상복 차익수 최점옥 무명

교회 및 단체 감사침례교회 목자교회 김화제일교회 반석중앙교회 산곡교회 모리아선교회 복음기도신문연구소 배방제일교회 순회선교단미주지부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오보평강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 주만교회 주나임교회 처음사랑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